Media
충남도립청양대학신문
CHUNGNAM PROVINCIAL CHEONGYANG COLLEGE

발행처 충남도립청양대학 신문사 **발행인** 총장 최석충 **사장** 박창원 교수 **편집장** 박미현 **발행일** 2012년 9월 제 35호 **디자인** 유선 TEL.041-732-3017 충남도립청양대학이 만드는 신문

안희정 도지사와 특별한 만남

"입시를 앞둔 고교생들에게는 충남도립청양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실질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지난 8월 21일 안희정 도지사와의 인터뷰를 가졌다. 안희정 도지사는 자신의 청년시절과 최근의 생각 등을 소탈하고 열린 마음으로 이야기 해 주었다. 도지사로서의 권위보다는 자상함으로 우리 학생 기자들을 대해주었다. 입시를 앞둔 충남고교생들에게는 대학이라는 상품의 효용성과 미래가치를 놓고 볼 때 충남도립청양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실질적인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지사님의 취미는 무엇인지요? 체력이나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 취미는 독서와 운동입니다. 도지사라는 직무 수행 상 일부러 시간을 내어 실천하기가 어렵지만 시간이 나는 틈틈이 시간을 할애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 건강관리는 우선 음식 가리지 않고 열심히 잘 먹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는 스트레칭도 하고, 퇴근 후 시간이 되면 근처에 있는 학교 운동장에서 달리기도 하지요. 산악자전거를 타기도 하였지만 요즘은 탁구에 재미가 붙어 직원동우회 회원들과 탁구로 건강을 다지고 있습니다.

도지사님의 20대 시절은 어떠셨는지요?

- 열심히 살고 또 그만큼 처절하게 넘어지기도 했던 시기였습니다. 고려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운동권시절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나는 이때 내 인생에 의미있는 두 번의 철저한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 첫번째는 후배들과의 관계에서 신망을 얻지 못했음을 자인하여야 할 때였는데요. 당시에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포용하려는 노력보다 지적 우월감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려는 경향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후배들이 그런 나에게 거리감을 두었고 방학을 맞아 모두 고향으로 내려가 서클의 MT에 아무도 참여하지 않는 일이 발생했지요.

- 두번째는 1988년 반미청년회 사건으로 안기부에 잡혀간 일입니다. 4인 1조를 이룬 2개 팀에 취조를 당하며 결국 두 달 만에 무너지고 만 일이 나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인생의 슬럼프나 힘들었던 고비가 있으셨 는지요? 있으셨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 참 많았지요.
우선 고등학교를 자퇴하여야 했던 일, 대학시절 운동권으로 겪어야 했던 수배와 투옥, 노무현 대통령님을 모시고 했던 정치에서 지역이라는 높은 벽 앞에 무너졌을 때의 좌절감, 정권의 창출자이면서도 2004년 감옥에서 보내며, 아빠와 남편, 그리고 아들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살았다는 자괴감이 들 때 등입니다. 그래도 다시 일어서서 오늘을 있게 한 것은 내 스스로 키운 "확신"과 "자존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에 우선 가치를 두어야 하는 지를 생각하며 선택의 기준은 언제나 나의 이익을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자 했어요.

도지사님께서 개인적으로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나, 꿈이 있으시다면 무엇입니까?

-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민주공화국의 초석을 다졌던 사람으로 역사에 남고 싶습니다. 나는 항상 국민들을 향해 '김대중 · 노무현의 미완의 역사를 완성하겠다' 라고 말해왔어요. 미완의 역사란 지역 정치의 극복을 말합니다.

도지사님의 자녀들은 몇 학년인지요 그리고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 대학 1학년과 중3인 아들 이렇게 둘이 있어요. 그들의 눈으로 그들과 소통하고자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이 자기 자식 교육이에요. 그동안 나는 정치활동으로 교편을 잡고 있던 아내가 아이들 교육을 책임졌어요. 내가 아이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 애들이 민주적 사회인으로 올바르게 커주었으면 합니다.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으시다면 어떤 책입니까?

- 취업 준비로 바쁘겠지만 대학생이라면 한번쯤 읽어봐야 할 책으로
- 오바마의 〈담대한 희망〉
- 장일순 선생의 〈노자이야기〉
- 신영복 선생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과 〈강의〉
-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등입니다.

입시를 앞둔 충남의 각 학교 고교생들에게 우리 대학의 장점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 대학을 매우 실질적으로 선택해 주었으면 합니다. 대학은 최소 몇 천 만원에서 1억 원까지 상품을 파는 곳으로 생각할 수 있지요. 상품의 효용성과 미래가치를 생각한다면 저는 당연 충남도립 청양대학이라고 생각입니다. 이는 아주 실질적인 학과, 교수님들의 면면을 보고 이를 알 수 있지요. 우리 대학이 취업률도 높지만 단순히 취업률만 보지 말고 이러한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꺼예요. 특히 앞으로도 우리 도는 계속적인 교육여건 개선과 시설확충에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대학의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 마음과 몸의 빗질을 하는데 게을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빗질은 독서이고 몸의 빗질은 열심히 운동하여 건강한 몸을 가지는 것입니다. 마음과 몸이 모두 깨끗이 빗질되 정리된다면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 질 것이다.

우리 대학의 교수 및 교직원에게 바라는 점?

- 우리 대학은 우리 지역의 인재를 우리 손으로 키워보자는 도민의 열망이 한데 모아져 만들어진 대학입니다. 나는 우리 대학이 도의 인재육성의 가장 중요한 교육기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육성된 인재가 우리 도와 우리나라를 이끄는 동량이 되길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교수님이나 교직원들은 이런 막중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에 지역의 동량을 키워낸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함께 가져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바다 기자 ghdqkek2@daum.net
양인상 기자 cpt17t@nate.com
이민주 기자 dlalswn7788@anver.com

INSIDE

C3 총학 Talk Talk Talk
대의원 Talk Talk Talk
C4 우린 청대스타일
C5 월별행사
- 5월 스승의 날 어린이 날
- 6월 이력서 콘테스트, 인테리어패션디자인과 졸업전시회
C6 photo zone
고교 교사 테니스 대회

교수협의회 및 교수동정

모교 출신 전임교수 첫 탄생

우리대학 출신 졸업생으로서 첫 교수가 탄생했다. 대학 당국은 뷰티코디네이션과 졸업생 이종순(51 · 사진) 초빙교수를 4월 30일자로 뷰티코디네이션과 전임교수로 임용했다. 우리대학 2회 졸업생(99학번)인 이종순 교수는 한남대와 서경대에서 미용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각각 취득한 후 중부대, 한남대, 전북대 등에서 외래강사로 출강하였으며 그동안 우리대학의 초빙교수로 활동해 왔다. 이종순 교수는 '앞으로 우리대학의 뷰티코디네이션과를 최고의 인지도와 경쟁력을 배양하여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학과로 만드는데 이바지할 것' 이라고 밝혔다.

최수임 기자 sue7462@nate.com

신임 교수소개

권정훈교수

<약력 및 경력>

·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경호학박사(경호전공)
· 現 충남도립청양대학 경찰행정과 조교수
· 前 경산1대학교 경찰경호과 조교수, 학생부처장, 생활관장
· 경비지도사 국가자격증 출제위원 · 검토위원(2011)
· 신변보호사 출제위원 · 평가위원 및 지역 본부장(2011)
·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 대회조직위원회 민간경비용역업체선정 심사위원(2011)
· 한국재난정보학회 우수논문상(2010)
· 소방방재청장 표창 (2009)

신임 교수협의회장 인사말

지난번 2012년 정기총회 때 우리대학 제8대 교수협의회회장으로 선임된 경찰행정과 곽영길 교수(경찰학박사)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후배 교수님들의 노고에 힘입어 중부권 최고의 명문대학으로 발돋움 해 나가고 있는 우리대학의 일원이라는 것이 뿌듯하고 한편으로는 중책을 맡게 된 바 잘 할 수 있을지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 동안 대학발전과 교수님들의 교권을 확립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신 전임 회장단의 노고(勞苦)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8대 교수협의회에 대해서도 모든 교수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그리고 애정 어린 채근을 기대하고자 합니다.
최근 대학진학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경쟁력 없는 대학의 퇴출 압력 등 외부의 여건변동으로 인해 우리대학도 이러한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수님들의 기탄없는 의견수렴을 전제로 한 실현 가능한 혁신적인 Agenda를 개발하여 교수님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대학 제8대 교수협의회가 대학당국과 상생(相生)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교수님들의 따가운 질책과 더불어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충남도립청양대학 제8대 교수협의회 회장 곽영길

교육역량강화사업 5년 연속으로 선정

우리 대학이 교육역량강화사업에 5년 연속으로 선정되었다. 학교 당국(총장 최석충)은 "교육과학기술부의 2012년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대학으로 최종 선정되어 올 한 해 9억 7천 4백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으며, 이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연속(총76억 8천 200만원)으로 교육역량 우수대학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룬 것이다"라고 기쁜 마음을 밝혔다. 교육역량강화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전문대학 교육 및 취업지원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여건과 성과가 우수한 선도대학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전국 146개 전문대학 중 80개 전문대학이 선정되었으며, 대전 · 충청권 지역에서는 16개의 전문대학 중 8개 대학만이 선정되었다. 우리 대학은 전국 도립대학 중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둠으로써 교육 중심 대학으로서의 면모를 다시 한 번 대내외에 과시하게 되었다. 한편 최석충 총장은 이는"취업률, 재학생 충원률, 장학금 지급률 등 전반적으로 우수한 성과지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 교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헌신적인 의지로 일구어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교육여건 개선과 취업지원에 연계강화, 우수전문 인력양성, 글로벌(해외연수 지원)인재양성, 다양한 장학금 지원 등 전략적 투자를 통해 질 높은 교육 서비스 제공 및 교육역량을 한층 강화하여 명실상부한 도립대학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승연 기자 tmddus4548@naver.com

우리 대학 공무원 공채 합격자 비율 빠름! 빠름! 빠름!

〈2012년도 공채 합격자〉

건설	박연희	공주교육청	환경	이현주	금산군청
소방	주 진	발령예정	자치	정의권	청양군
소방	김현기	발령예정	자치	구 슬	서천군
소방	김한수	발령예정	자치	이기현	청양군
소방	이현수	발령예정	자치	이주호	서산시
소방	양승현	발령예정	토지	최동현	당진
소방	라성철	경기도	토지	김용남	발령예정
소방	조승우	발령예정	토지	이혜영	천안
소방	강석헌	발령예정	경찰	김현섭	충남지방경찰청
소방	김기명	발령예정	경찰	이진화	서울지방경찰청
소방	이태영	발령예정	자치	여인성	발령예정
환경	이경호	충남도청	자치	염철민	발령예정

우리 대학의 공무원 선발 비율이 작년에 비해 크게 상승하였다. 2011년도에는 공채15명 특채15명이 선발 된 반면 이번 2012년도에는 이미 상반기에만 공채 23명의 선발이 확정된 가운데 자치과 1명의 재학생이 면접만을 앞두고 있으며, 후반기에도 이 추세는 계속 이어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무원 특별 채용 역시 작년 수준으로 이어질 예정이어서 점점 어려워지는 취업난에도 우리 충남도립청양대학의 학생들의 취업은 매우 밝다고 보여진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봉사활동'

우리 대학의 뷰티코디네이션과와 직업치료과 재학생을 중심으로 구성된 지역순회봉사단은 금년도에 총 14회에 걸쳐 약 700여명의 지역 어른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우리 대학은 지역주민들의 사랑에 보답하고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지역주민 봉사활동' 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4월 2일에 지역순회봉사단은 부여군 규암면 부여사랑 노인요양원을 찾아 지역 어르신 60여명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벌였다. 이번 봉사활동은 우리 대학의 뷰티코디네이션과 28명, 작업치료과 12명의 재학생으로 구성된 지역순회봉사단(40명)이 부여군 규암면을 방문하여 △이미용 헤어커트 △염색 △헤어 펌 △발 맛사지 △신체활동요법(전기마사지) 등 지역 어르신들에게 알맞는 봉사활동으로 뜨거운 호응을 얻음과 동시에 지역민과 하나가 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한 것이다. 우리 대학은 앞으로 충남 도내 시, 군의 소외된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순회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석충 총장은 "앞으로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찾아가는 봉사활동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현장실습기관' 으로 발전의 틀을 구축하여 도민에게 사랑받는 도립대학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 고 말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대학 학생들이 지역주민을 생각하는 따뜻한 봉사정신을 실천하는 장이 확산되기를 바란다.

양인상 기자 cpt17t@nate.com
최수임 기자 sue7462@nate.com
이혜영 기자 sktkfkd04@naver.com

2012년 총학생회장과의 Talk Talk Talk

지난 5월 우리 대학의 총학생회장(뷰티코디네이션과, 김종환, 25)과의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다음은 1,120여명의 학우들의 대표로서 올 한해 우리 학교를 이끌어 갈 학생회장과의 인터뷰이다.

Q 학우들을 대표하는 학생회장으로서 간단한 포부를 말씀해 주세요.

A 올 한 해 동안 학우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 총학생회 임원을 조직하여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해 발로 뛰는 총학생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Q 많은 학생들이 총학생회 조직구성원과 조직 구성방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임원진이 구성되나요?

A 우리 대학 14대 총학은 총학생회장을 중심으로 부회장, 총무부장, 체육부장 · 차장, 기획부장 · 차장, 문화부장 · 차장, 홍보부장 · 차장, 여성부장 · 차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원들은 각 과별로 고루 선출하여 모든 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직하였습니다. 임원선출은 지원자에 한해 총학에서 자체적으로 면접을 통해 선발됩니다.

Q 앞으로 2012학년도의 총학생회의 포부에 대해 듣고 싶네요.

A 이번 14대 총학은 '불꽃같은' 이라는 좌우명을 정했습니다. 온몸을 태워 주위를 환하게 비추는 불꽃처럼 희생정신과 책임감을 가지고 학우들에게 봉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뜻을 항상 서로 상기하며 언제나 학우들 속에서 학우와 함께 호흡하며 학우들이 호소하는 부분을 최대로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앞으로 봉사활동 및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A 다음 주에 교내에서 체육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기자주, 인터뷰 당시는 체육대회가 개최되기 전이었다) 예선도 이미 진행 중이고 총학 모두가 앞장서서 모든 학우들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행사가 끝나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향후엔 지역 주변 농촌을 총학 모두가 방문해 일손이 부족한 지역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유대감을 형성할 예정입니다.

Q 학생들이 가장 예민해하고 궁금해 하는 내용이 학생회비 사용내역입니다. 학생회비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2학기 때 발간되는 학교 신문에 사용내역을 공개할 의향이 있나요?

A 학생들이 원한다면 공개할 의향이 있습니다. 돈이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 학생들이 예민해하고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학생회비 내역은 총학에서 예산편성을 한 다음에 학생지원처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회비 내역은 투명하게 집행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Q 학우들의 대표로서 학생들이 원하는 부분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행사를 진행하거나 학교를 다니면서 불편한 점이나 원하는 점이 있으실 텐데요, 총장님이나 학교에 건의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요?

A 해오름관이 생긴 이후로 그 안에 넓은 체육공간과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이용되고 있지만 학생들의 체육공간이 현실적으로 부족해 즐겁게 체육활동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학생들이 언제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공간을 넓혔으면 합니다. 또한 학교 내 정수기가 곳곳에 설치 되어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학교 내 정수기 등의 편의시설을 좀 더 늘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Q 현 시점에서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학생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우선 어려운 점은 타 학교와 비교해봤을 때 총학의 자율성과 재량권이 부족해 그만큼 학생들에게 영향력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교내에서 하는 행사진행에 있어 우리 학교가 학업위주다 보니 학생들의 참여도가 낮아 호응이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는 학생들이 좀 더 학교 행사에 관심을 가지고 화합하여 학교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었으면 합니다.

Q 우리 학교에는 흡연구역이 3곳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아직도 계단 등을 이용해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 방송부와 연합하여 금연 캠페인 등 이벤트를 진행하거나 학생들의 필요를 파악할 수 있는 설문조사를 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A 당연히 할 의향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필요로 하고 공익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 서로 협력하여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Q 신문부와 방송부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A 청양대학 모든 학생들이 서로 생에 한번뿐인 대학생활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각과의 화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문기사에 그냥 각자의 과 활동자랑이 아닌 다른 학과와 함께한 에피소드나 각과를 홍보 할 수 있는 기사를 쓰거나 교내 방송을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학생회장 임기 동안의 포부와 계획을 들을 수 있었다. 학생회는 학우들의 의견과 요구를 검토, 조정, 수렴하여 총체적인 집행을 하는 자치기구인만큼 학생회 스스로의 책임감도 필요하다. 그렇지만 그에 앞서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가 먼저 수반되어야 한다. 학생회는 학생들의 대표기구인 만큼 학생들과의 신뢰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이에 학생회는 자신들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대표성을 얻어야 할 것이며, 학교 당국도 총학과 학생들을 위한 지원을 아낌없이 해줄 것을 바란다. 이제 남은 시간동안 견제와 화합을 통해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이다.

이승연 기자 tmddus4548@naver.com
박미현 기자 mhuo@naver.com
이민주 기자 dlalswn7788@anver.com

2012년 대의원장과의 Talk Talk Talk

지난 6월 대의원장(윤종민)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다음은 대의원장으로서의 소견과 포부를 담은 인터뷰 내용이다.

Q 대의원장으로서 간단한 소개 말씀 부탁합니다.

A 안녕하세요. 컴퓨터 정보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윤종민입니다. 현재 저는 각 학회 임원들의 모임인 대의원회의 장의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Q 대의원회의 조직 구성원과 조직 구성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 졌습니까?

A 저희 대의원회는 각 학과의 과 회장, 학급 장, 학회 임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의장 1인, 부의장 1인, 총무 1인을 두고 있습니다. 의장은 각 과 학회장 중에서 선출 하고 있으며, 투표 방식은 대의원회 내에서 직선하고 있습니다.

Q 작년 대의원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습니까?

A 작년 대의원회도 물론 최선을 다하였지만 올해의 대의원회는 작년보다 더 나은 대의원회가 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작년까지는 대의원회의가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년도부터 대의원회가 활성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계기가 무엇입니까?

A 작년까지의 대의원회의는 활발한 활동이 없어서 아쉬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해부터 총학생회와 상호 협력하고 학생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 대의원회의를 활성화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대의원회의 임원들인 각 학과의 대표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해주어야 그에 따른 학생들의 활동성이 보장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Q 현 시점에서 대의원회 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대의원회 임원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점입니까?

A 지금까지는 각 학회 임원들과 학생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셔서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유지하는 마음가짐으로 끝까지 열심히 활동해 주었으면 합니다.

Q 앞으로 대의원회를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계획이십니까?

A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총장님과 총학생회에게 잘 전달 될 수 있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잘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방향입니다.

Q 대의원장 입장에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A 언젠가 기회가 되면 말하고 싶었고, 항상 마음속에 두었던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학회 임원장학금에 대한 것인데 각 학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학회 임원 분들에게 장학금이 확대되어 항상 학과를 위하여 뒤에서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고 있는 학과의 리더들에게도 소량의 장학금이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대의원장의 소견과 포부를 들을 수 있었다. 대의원회는 각 학과 학생들의 대표인 임원들의 모임인 만큼 좀 더 학생들의 편에 서서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하며 그에 걸맞게 항상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대의원 활동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올해 대의원회는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활기찬 활동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의견 반영과 복지 향상을 위해 각 학과들과의 활발한 교류가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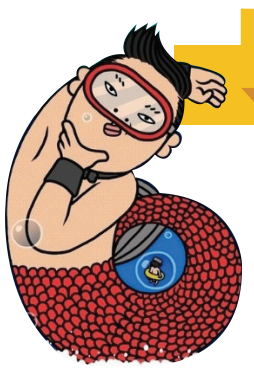
양인상 기자 cpt17t@nate.com
최수임 기자 sue7462@nate.com
이혜영 기자 sktkfkd04@naver.com

'불꽃같은' 제14대 총학생회 출범식을 가다!

2012년 4월 4일(수) 우리 대학 해오름관 대강당에서 총학생회 임원, 교직원, 재학생 등 200여명의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충남도립청양대학 제 14대 불꽃처럼 총학생회 출범식' 이 개최되었다. 14대 학생회는 총학생회장을 중심으로 각과에서 임원들을 선출해 구성되었다. 이날 총학생회의 앞날을 격려하기 위하여 최석충 총장과 각 부처장 그리고 각 학과 교수님들이 참여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이번 행사는 학생지원처장의 총학생회 기이양으로 시작되어 사회자가 올 한해 우리 학교를 이끌어갈 총학생회 임원을 소개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총학생회장이 자신의 각오와 포부를 다졌다. 총학생회는 우리 대학을 대표하는 기관인 만큼 책임감이 막대하다. 큰 대의에 걸맞게 그에 합당한 노력으로 학생들을 위해 앞장서야 할 것이며, 앞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이 학교 발전을 위한 정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양인상 기자 cpt17t@nate.com

우린청대스타일



자치행정과 이 규 혁
- 나이 : 24세
- H.P : 010-3003-1316
- 취미 : 컴퓨터 하기
- 특기 : 유머
- 별명 : 3초 용준형 (자칭 용준형이라 하고 다님)
- 오늘의 컨셉 : 자치과 모델 Lee
- 좌우명 :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 이상형 : 손연재

인테리어패션디자인과
원 동 후
- 나이: 20세
- 취미: 술먹기
- 특기: 쇼핑몰 제작

작업치료과 김 진 웅
- 나이 : 20세
- H.P : 010-9550-4982
- 취미 : 인터넷 검색
- 특기 : 노래부르기, 노래듣기
- 별명 : 3초 장동민(인터뷰 당시 깜놀 했음)
- 오늘의 컨셉 : 동안스타일 (하루하루 의상선택에 신중을 기함)

호텔관광외식과 이 광 수
- 나이 : 25세
- 취미 : 노래듣기
- 특기 : 노래부르기, 피아노치기
- 좌우명 : 지금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
- 이상형 : 음악으로 공감할 수 있는 여자
- 인생목표 : 먼훗날 살아온 삶을 뒤돌아 봤을 때 후회하지 않도록
- 마지막멘트 : 호텔과 파이팅 !

뷰티코디네이션과 박 철 규
- 나이: 24세
- H.P : 010 - 4174 - 0032
- 취미 : 축구
- 특기 : 미용
- 오늘의 의상컨셉 : 의사 (등교전 어머니가 의사 같다고 함)
- 좌우명 : 멋진 미용인이 되자

인테리어패션디자인과
유 희 정
- 나이 : 21세
- 취미 : 그림그리기
- 특기 : 산책하기
- 좌우명 : 포기만 하지말자

소방안전관리과 이 덕 희
- 나이 : 24세
- 취미 : 가사쓰기
- 특기 : 운동 (Allways 다 잘하니까)
- 별명 : 껍데기
- 이상형 : 한예슬
- 좌우명 : 화려한 성공뒤에는 반드시 화려하지않은 준비가 있다.
- 좋아하는 노래 : 힙합, R&B

전기전자과 박 형 관
- 나이 : 23세
- 취미 : 요리하기
- 특기 : 요리하기
- 별명 : 고라니
- 오늘의 컨셉 : 비온 뒤 날씨는 쌀쌀하다
- 술주정 : 취하면 Dog

경찰행정과
이 희 찬
- 나이 : 20세
- H.P : 010-3460-0920
- 취미 : 독서
- 오늘의상 컨셉 : 학교편의점으로 출발
- 별명 : 싸이코
- 술주정 : 취하면 화장실에서 잠이 든다

컴퓨터정보과 김 지 형
- 나이 : 21세
- H.P : 010-5102-4579
- 취미 : 노래하기 (장르 : 발라드)
- 오늘의 의상 컨셉 : 보라돌이
- 별명 : 싸이 (신입생 OT때 싸이노래로 강한 인상을 남김)
- 좌우명 : 독창적으로 살자

인테리어패션디자인과
강 미 소
- 나이 : 20세
- 취미 : 그림그리기
- 좌우명 : 현재를 즐기자

김 영 현
- 취미 : 텃밭가꾸기
- 특기 : 밥맛있게 먹기
- 좌우명 : 잘먹고 잘살자
- 장래희망 : 농부

충남도립청양대학 글로벌 인재양성 교육시스템 구축

우리 대학의 핵심 역량이 될 글로벌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글로벌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은 우리 대학의 학생들로 하여금 전 세계 어느 국가에나 취업이 가능한 능력을 키우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위해 4개과(컴퓨터정보과, 호텔관광외식과, 인테리어패션디자인과, 뷰티코디네이션과)가 주축으로 참여하여 인재양성교육 테스크포스팀이 구성된 바 있다.

인재양성 테스크포스 팀에서는 우선 과제로 국제자격증 및 어학 교과목 커리큘럼반을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어학능력과 취업을 뒷받침할 국제자격증의 취득이 글로벌 취업을 위해서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우리 대학 학생들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은 이 지구촌에서 세계를 무대로 자신들의 취업 및 삶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다양한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 대학생들은 영어 등 어학실력이 다소 떨어지고 있는 형편이어서 어학능력 향상 등의 교육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각 과의 정규 교과목을 세계화 프로젝트에 맞게 국제 자격증 및 어학 교과목의 실질적 능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획기적인 능력 향상이 기대된다. 이런 정규 수업에도 부족한 부분은 야간 시간과 방학을 활용한 비정규 수업을 통해 어학 실력의 강화를 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신입생 영어 특별반 및 국제반 운영과 해외자매대학과의 실질적 복수학위제 운영, 지자체 지원 해외인턴 고교생 특례 입학 및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 연계, 글로벌 평생교육프로그램 신설 등의 교육 컨텐츠가 추가된다.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 장학재단은 우리 대학 발전에 깊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 바 약 1억 8천만원을 지원하여 각종 글로벌 관련 사업을 적극 활용한 실질 해외취업률 확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홍바다 기자 ghdqkek2@daum.net

5월의 행사

스승의 날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대학의 각 학과마다 교수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행사를 진행했다. 우리 인생의 앞날을 이끌어주시는 스승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전해드렸다. 은사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릴 수 있는 스승의 날은 1958년 5월 8일 청소년 적십자 단원들이 세계적십자의 날을 맞아 병중에 있거나 퇴직한 교사들을 위문하기 시작하면서 스승의 날을 제정하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시작하였다. 그 후 1963년 10월 서울과, 1964년 4월 전주에서 청소년 적십자단의 각 도 대표가 모여 회의를 열고, 사은 행사를 가지기로 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1963년 제12차 청소년적십자사 중앙학생협의회에서는 5월 24일을 '은사의 날'로 정하여 기념할 것을 권장하게 된 것이다. 1964년에는 '은사의 날'을 '스승의 날'로 명칭 변경하고 날짜도 5월 26일로 이전하였다가 1965년에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확정한 것이다.

이혜영 기자 sktkfkd04@naver.com

성년의 날

우리 대학 총학생회에서 2012년 성년의 날을 맞이하여 장미꽃을 나누어주는 이벤트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성년의 날 행사는 올해 성인이 된 학생들을 축하하는 뜻 깊은 시간들로 채워졌다. 성년의 날은 만20세가 된 젊은이들에게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짊어질 성인으로서 자부심과 책임을 일깨워주고 성년이 되었음을 축하 격려하는 날로서 매년 5월 셋째 월요일에 국가청소년 위원회가 행사를 주관한다. 예로부터 나라 · 민족별로 다양한 성인식 행사가 있었는데, 한국에서도 고려시대 이전부터 성년례(成年禮)가 발달해 어린이가 어른이 되면, 남자는 갓을 쓰고, 여자는 쪽을 찌는 관례(冠禮) 의식을 통해 공식적으로 어른이 되었음을 알렸다. 관혼상제(冠婚喪祭)의 첫째 관문인 '관'이 바로 이 성년례를 말하는 것이다.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만 20세가 되면, 지역이나 마을 단위로 어른들을 모셔 놓고 성년이 되었음을 축하하는 전통 의례를 치르는 곳이 많았으나, 갈수록 서양식 성년식에 밀려 전통 성년례의 모습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유럽문화권의 경우 특별히 성인의 날을 제정해 행사를 갖지는 않고 있으며, 독일과 스위스의 경우는 지능과 정신연령을 측정해서 통과된 사람에게 18세부터 성년신고를 받게 된다. 성년신고를 마친 사람은 20세 이전이라도 성인 대우를 받는 것이다. 매우 특이하지만 합리적인 사례라고 생각된다. 프랑스의 경우는 15세 이상 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독립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있으며, 결혼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성인으로 대우한다.

올해에 성인이 된 우리 학우 여러분 모두 축하드리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숙한 자세를 갖춰주시기 바란다.

이혜영 기자 sktkfkd04@naver.com

6월의 행사

인테리어패션디자인과 졸업전시회

6월 18일 인테리어 패션디자인과 학생들의 땀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졸업 작품 전시회가 열렸다. 졸업 작품 전시회에는 학생들이 직접 디자인한 종이옷과 다양한 공간에 대한 인테리어 모형들을 전시했으며, 주제에 맞춰 패션쇼도 열었다. 졸업 작품 전시회는 시작부터 끝까지 인테리어 패션디자인과 1,2학년 학생들의 힘으로 이루어져 뜻 깊은 행사가 되었다. 졸업작품전시회 작품 하나하나를 모두 학생들이 만들고 전시함으로서 졸업예정인 2학년들에게는 지난 학창시절을 되돌아보고 정리할 시간을 가졌고 1학년들에게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시간을 계획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혜영 기자 sktkfkd04@naver.com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이력서, 자기소개서 콘테스트 개최

우리 대학(총장 최석충)은 취업경쟁력 도모를 위해 6월 18일 대학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12개 학과장 및 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력서, 자기소개서 콘테스트 개최에 따른 우수작품에 대해 시상식을 했다. 이력서 · 자기소개서 콘테스트는 취업능력 배양을 위해 2005년부터 매년 꾸준히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345명의 학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자기소개서를 심사한 결과 ▲ **최우수상은 인테리어패션디자인과 우영순, ▲우수상은 작업치료과 신은미, ▲장려상에는 호텔관광외식과 박민우, 작업치료과 양예진, 자치행정과 박미현** 학생이 각각 선정되었다. 대회 개최 전 5월에는 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 취업지원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방법 및 우수기업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위한 특강을 실시한 바 있다. 최석충 총장은 시상식에서 '자기소개서는 지면을 통해 자신의 모습(얼굴)을 제3자에게 보여주는 척도인 만큼, 표현하는 방법을 꾸준히 기를 것'을 당부했다.

이민주 기자 dlalswn7788@anver.com

Photo Zone

맨발투혼

빠름 ~ 빠름 ~ 빠름~

김정과~!

아자 아자 파이팅~!

세월아 네월아 ~~

내기바로 우사인볼트

받아라 내 불꽃 슛~

환경과의 환상적인 팀워크~

가아~ 간다

소방과 뭘 응원하니 대체~

넌 적없어~~

미남 3인방~

자유로운 [illegible]

빨라 너무~!

힘 합계의 음유시인
엠씨스나이퍼

자 이제~! 시작이야

역시 더위엔 아이스박스지~

제7회 충남도립청양대학 초청 충남 · 대전 · 세종시 고교교사 테니스대회 개최

충남 · 대전 · 세종시 고교 교사들을 초청하여 테니스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교사 간의 정보교류 및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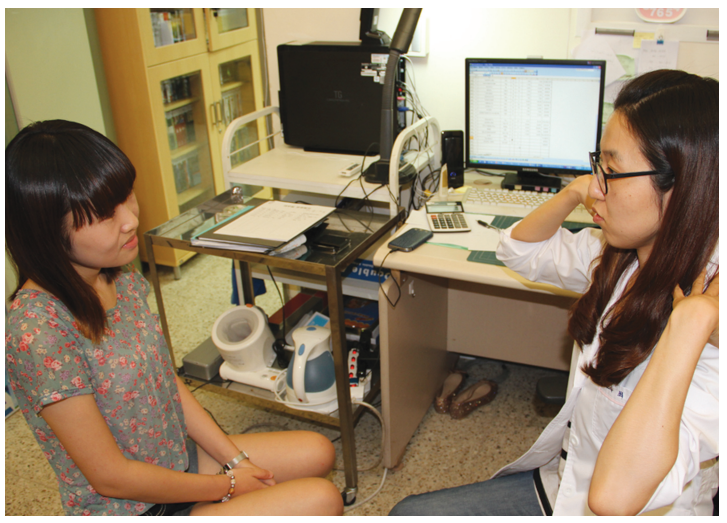
- 개최일시 : 2012. 10. 13(토) 10:00 ~ 20:30
- 개최장소 : 충남도립청양대학 본부코트 외 보조경기장
- 경기종목 : 개인 복식
- 참가대상 : 충남 · 대전 · 세종시에 고교에 재직중인 교사
- 참가신청 : 2012. 09. 17~09. 26 18:00까지
  (코트면 관계로 80팀 선착순 마감)

✲ 참가문의 및 접수

- 참가문의 : 노영주 교수(010-5345-6730)
- 참가접수 : E-mail 접수
  (산학협력단 김미애 31010642@daum.net ☎ 940-6642)

의무실 소개

간단한 상처치료가 필요할 땐? 학교에서 갑자기 구급약이 필요할 땐? 건강상담을 받고 싶다면? 청양대학 종합병원 '의무실' 을 방문해보자. 의무실은 다친 학생들뿐만 아니라 상담을 요하는 학생들을 위해 항상 간호사선생님이 대기하고 있다.



Q.학교 내 의무실 활동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나요?

A.의무실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신속한 응급처치와 필요한 의약품 지급 등 기본적인 활동 외에도 신입생을 위한 건강검진과 체육대회 및 축제 시 건강상담소를 운영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헌혈행사, 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 등 다양한 활동들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4~6월 동안 실시한 신입생 건강검진에 신입생 93%가 참여 하는 등 높은 참여율을 보였고, 검진과 함께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각 항목별 평균 63%이상이 매우만족(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진항목으로는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체지방 4항목이었으며, 체지방 측정에서 과체중 이상이(43%), 혈압(23%), 혈당(4.4%), 콜레스테롤 (0.9%)이상자로 나타났다. 건강 이상자에 대해서는 9월부터 재검을 할 계획입니다.

Q.학생들의 주된 의무실 방문사유는 무엇입니까?

A.병원이나 약국이 학교와 원거리에 위치해 있어 응급시 약을 처방받거나 간단한 외과처치 환자가 제일 많고, 건강상담이나 체지방, 혈당 측정을 위해 방문하기도 합니다.

질환별로는 외과처치(26.3%). 호흡기질환(22.4%), 위장관질환(18.3%), 근골격계(17%), 진통제(7%), 두통(4.2%), 피부(3.1%), 안과(1.6%)순으로 많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Q.학생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나요?

A.2012년 의무실 운영계획의 비젼이 "건강한 학생, 행복한 충남도립 청양대학"입니다. 우리 대학 학생 모두가 자신의 건강을 잘 관리하여 소망하는 목적을 이루어 행복해지는 학교를 꿈꿔보며, 건강은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한 기초로, 기초가 없으면 그 어느 것도 쉽게 이룰 수 없듯 우리대학 학생들의 꿈의 기초인 "건강"을 위해 앞으로도 의무실은 노력할 것이며, 학생들도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대학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의무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알려져 있지 않아 정작 응급한 상황에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학 의무실은 본관 3층의 도서관 대출처 뒤편에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홍바다 기자 ghdqkek2@daum.net 최수임 기자 sue7462@nate.com

AED의 중요성!!!!!

응급처치와 AED사용법

1 의식을 잃었는지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살핀다.
2 주위에 있는 사람에 119신고와 AED 요청을 한다.
3 119오기 전까지 심폐소생술을 한다.
4 AED가 도착하면 다음의 순서대로 진행한다.

4분의 기적! 안내멘트만 따라하면 누구나 한사람의 인생을 살려요!
AED는 급성심장마비, 환자나 심실 세동 환자에게 심폐소생술(CPR)과 함께 수행하였을 때 소생률 80%까지 높아집니다.

잠깐! *우리학교도 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자동제세동기가 있습니다.*

본동과 각 강의실 1층에 있습니다!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우리도 AED를 사용해봅시다!

1-1
휴대용 AED의 경우, 지퍼로 닫혀져있는 경우가 있다 지퍼를 열고, 전원버튼을 켠다. AED 조작 버튼을 켠다. AED조작 버튼이 간소화되어 있고 조작법이 매우 쉽게 작동할 수 있다.

1-2
패치에 그려진 그림대로 우측 쇄골 뼈 아래 부분과 좌측가슴선 아래 부분에 부착한다. 부착 시 좌우 구분을 반드시 하고 연결된 선이 몸 중앙으로 올 수 있도록 부착한다.

1-3
커넥터란? 방금 전에 부착한 패치와 AED기기를 연결시켜주는 코줄이다 쉽게 말해서 패치의 고도를 AED에 연결한다.

1-4
커넥터를 AED에 연결하면 AED 기기에서 안내멘트가 나온다. 분석 "진행 중입니다. 환자에게서 떨어지세요." 떨어지는 이유는 주변에 사람이나 물체가 닿는 경우 분석이 어렵기 때문이다

1-5
분석중인 AED 기기에서 "제세동해야합니다. 충전중입니다" 라는 멘트가 나오게 되면 다시 한 번 주위 사람들에게 물러나도록 한다. "충전이 완료되었습니다. 제세동실시하세요"라고 하면 제세동 버튼을 눌러준다

1-6
제세동을 통해 쇼크를 가한 후에는 바로 CPR을 실시한다. 이때 부탁한 AED 패치는 떼지 않고 두고 있다가 AED 안내멘트를 듣는다. 다시 제세동을 해야 할 상황이 올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자후기

박미현 기자

신문사 활동을 한지도 어느덧, 1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다. 그 시간동안 많은 신문을 발간 한 것은 아니지만, 신문사 일원으로서 모든 임원들에게 그간 했던 노력과 노고에 많은 격려와 박수를 보낸다. 앞으로는 좀 더 활기차고 많은 학생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밝고 재미있는 신문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제 2학기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앞으로 신문사를 이끌어갈 남아있는 후배들에게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라고, 또한 학보사에 대해 재학생들 및 교직원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

이승연 기자

신문부에 처음 들어 왔을 때 새로운 사람들과 '동아리' 라는 모임을 갖게 된 것이 나에게는 학교생활에 있어 큰 동기부여가 되었다. 학교의 선배로, 동아리의 1년 선배로서 학보사를 이끌어 가고 있는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동아리 활동을 함께 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가는 유익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지금 이 순간까지 함께 왔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을 만큼 굉장히 설렌다.

홍바다 기자

학기 초 학회장 형의 추천으로 신문사를 알게되었다. 평소 사진 촬영에 관심이 많았던 나는 신문사에 관심이 가게 되었고 기사에 들어갈 사진들을 찍고 싶어 신문사에 들어올 수 있었다 . 그리고 동분서주 힘들게 노력한 결과 멋진 신문을 발간하게 되었다. 아무쪼록 학우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고 유익한 정보의 신문을 만들기 위해 학보사는 더 노력하겠고 끝으로 지성인 청양대학 학우 여러분들이 학교 신문을 아끼고 사랑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양인상 기자

이번에도 기사를 쓰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다. 주된 기사들은 작년 컨셉과 비슷한 흐름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번 기사에 대의원장과의 인터뷰를 하면서 질문지 내용과 시간, 장소 섭외에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기사를 통해 요령이 생겨 다음에도 인터뷰를 하게 된다면 어렵지 않게 인터뷰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1학기로서 기자 생활이 끝이 난다는 것이 아쉽고, 시간이 좀 더 충분했다면 더 많고 유익한 기사를 쓸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이민주 기자

이번 신문은 졸업을 앞두고 발간하는 마지막 호라 욕심도 많았고 정도 많이 갔다. 1학년 때보다는 여유롭게 인터뷰도 했고, 새로 들어온 후배들과 아이디어 회의도 같이하고, 글도 같이 쓰면서 정말 즐거웠다. 2년동안 신문부를 하면서 내 이름이 새겨진 기사도 써보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무엇보다도 책임감을 갖게 되었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졸업 후에는 지금보다 더 발전하고 학생 참여도도 높은 신문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최수임 기자

이번 신문에는 신문사 인원이 부족하여 신문을 발간하는데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신문 기자들이 많이 들어와 한결 수월하게 신문작업을 마칠 수 있었다. 마지막 신문을 만들면서 전 학기에 비해 학생들의 참여도도 높아지고, 좀 더 활동적인 신문이 발간된 것 같아 뿌듯하다. 앞으로 신문사의 활동이 더욱 적극적으로 발전되었으면 좋겠다.

명소영 기자

직접적으로 많은 기사 작성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기사작성과 편집의 고단함을 알 수 있었다. 다음 신문발간 때에는 이번 신문보다 더욱 많은 기사작성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두려움도 느껴지지만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이혜영 기자

처음 학교에 입학해 신입기자로 새로 들어와서 적응하기도 함든 학교생활을 하며 아직은 어설프게 기사를 쓰고 동아리 활동을 하였다. 이번 동아리 활동을 시작하면서 학교일에 관심을 가지고 생활하다 보니 적응하기 힘든 한 학기를 다른 친구들보다 더 빨리 적응하고 신문사 선배들의 도움을 받아 뜻깊은 시간을 보내게 된 것 같다. 아직도 배워가는 중이지만 다음 학기는 신문사 선배들의 뜻을 이어받아 신문사의 어엿한 일원으로써 좀 더 발전해 활동하겠다.

김다인 기자

우리 학교에 신문부 동아리가 있다는 것을 우연히 학교 도서관에 갔다가 한쪽에 꽂혀 있는 신문을 보고서 알게 되었다. 신문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무렵에 기회가 되어, 1학기 중간쯤에 신문부에 들어가게 되었다. 면접을 보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먼저 들어와 있는 친구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약간은 어색했지만 2학기 때는 어색함을 완화하고 좋은 신문을 만드는데 큰 역할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동복 기자

신문부에 들어오게 되면서 내가 신문기사를 처음 써보는데 잘 쓸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많이 하였다. 기사를 쓰는 내내 어색하고 회의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해 아쉬웠다. 하지만 신문사의 임원들이 많이 도움을 주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신문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보고 느끼면서 배울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 재미를 느끼고 기사 등을 편집해 과는 과정에서 학교에 대해 좀 더 알아가고 여러 가지의 정보와 지식을 얻게 되는 과정들이 나에게는 너무 큰 도움이 된 것 같았다. 신문사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뿌듯했다.

각 학과 소개

건설정보과
교육목표 : 국토전문기술인,토목직 공무원 양성
도로, 교량, 상수도, 하수도, 댐, 터널 등 국가기반시설 건설과 도시개발 분야의 중견기술인 양성! 건설정보과에서는 국토건설 전문기술 지식인이 되도록 지향
취업분야 : 국토해양부, 충청남도 및 시.군 토목직 공무원, 수자원공사 및 토지주택공사등 국영기업체, 각종 건설.설계,감리회사

소방안전관리과
교육 목표 : 유능한 소방 기술을 갖춘 소방공무원 양성
화재예방과 안전관리 등 각종 재해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교육으로 소방공무원은 물론 유능한 전문기술을 갖춘 소방인을 양성
취업분야 : 소방공무원, 화재보험협회, 소방안전협회, 소방검정공사, 소방시설 설계업체, 소방공사, 감리업체, 소방용기계.기구류 생산업체

전기전자과
교육목표 : 경쟁력 있는 전기전자 기술인 양성
IT혁명을 이끌어갈 21세기 최고의 성장산업 분야에서 창의력과 협동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육성을 위한 최적의 교육시스템과 인성 교육을 제공
취업분야 : 대기업, 가전 및 회로설계회사, 반도체 제조 및 디스플레이 회사, 공무원 및 공공기업, 컴퓨터 H/W 및 인터넷 관련회사 마이크로프로세서 관련회사

컴퓨터정보과
교육목표 : 경쟁력 있는 컴퓨터 전문가 양성
유비쿼터스 사회를 선도하고자 하드웨어, 네트워크 관련기술 등 각종 소프트웨어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현장실무중심 교육을 시행
취업분야 : 국가 및 지방 전산직 공무원, 공공기관 및 일반 기업체 행정 및 전산직원, 개발자, DB 각종서버 관리자, 중.고등학교 실기교사

환경보건과
교육목표 :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전문가 양성
환경오염의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이를 관리하는 환경 보건 전문기술 양성. 자연환경의 보존과 국민 보건 증진을 위한 전문가가 되도록 지원
취업분야 : 환경직 공무원, 환경관련 연구소, 환경관련 엔지니어링회사, 환경분석 및 평가대행업체, 위탁관리 업체, 산업체 환경관리인

자치행정과
교육목표 : 미래지향적인 자치행정인과 지역지도자 양성
지역사회의 발전을 중추적으로 선도하고 지방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사회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갖춘 유능한 행정인력을 양성
취업분야 : 국가 및 지방 행정공무원, 국영기업체, 공사.공단 사무직원,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일반관리직원

토지행정과
교육목표 : 토지정보를 운영. 관리하는 지적직 공무원 양성
토지정보시스템(KLIS)과 위성측위시스템(GPS)등 최첨단의 실무중심 지식교육을 통해 국토전반에 대한 토지정보를 운영.관리하는 프론티어-리더형 전문인력을 양성
취업분야 : 토지행정공무원 및 유사 직종 공무원, 대한지적공사, 토지공사, 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고속철도시설관리공단, 한국감정원, 국책 연구기관 및 연구소, 감정평가업, 일반측량업 및 지적(토지 및 도시계획) 관련 업체

호텔관광외식과
교육목표 : 관광산업분야의 감각을 겸비한 관광전문인 양성
품격 있는 호텔리어, 여행 전문가, 항공 시스템 전문가, 외식관련 전문가를 양성. 21세기 관광산업 분야를 이끌어갈 멀티플레이어형 관광 전문 인재 배출
취업분야 : 관광관련 공무원 및 행정공무원, 국내외 특급 체인 및 리조트 호텔, 국내외 여행업체, 항공화물 운송업체, 항공사, 세계적 체인외식업체

인테리어.패션디자인과
교육목표 : 창의적이고 감각 있는 프로페셔널리스트 양성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하여 폭넓은 체험을 통한 실무능력을 향상시켜 인테리어 광고디자인 여러 분야에서 활약할 창의적인 디자이너 양성
취업분야 :공무원, 인테리어디자이너, 방송국.연극.영화 무대디자이너, 가구디자이너, 호텔.백화점.방송국의 방송전문 패션코디네이터, 패션 전문 기업체의 패션디자이너, 광고 스타일리스트

뷰티코디네이션과
교육목표 : 경쟁력 있는 토탈 뷰티아티스트 양성
헤어디자인, 피부미용, 메이크업, 네일아트를 중심으로 한 전문적인 이론과 실무 습득으로 토탈 뷰티코디네이터로서의 능력. 인성. 교양을 갖춘 전문 뷰티아티스트 양성
취업분야 :방송국 특수분장사, 메이크업 아티스트, 헤어디자이너, 네일아트스트, 피부관리실, 피부과 병원의 피부관리사, 미용학원의 강사, 이미지 컨설턴트, 뷰티코디네이터

작업치료과
교육목표 : 장애우들의 재활을 돕는 보건의료 전문가 양성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치료적 활동을 통해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전문교육을 통해 사명감과 윤리의식을 갖춘 작업치료사 양성
취업분야 : 보건 및 의료기술직 공무원, 도내의료원, 보건소, 종합병원, 재활병원, 정신병원, 개인병원, 종합복지관,노인복지시설, 치매센터, 재활원, 장애인시설 직업훈련원, 의료기 회사, 해외취업

경찰행정과
교육목표 :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정의로운 경찰 양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능을 교육과정을 통하여 헌신적이고 사명감에 찬 예비경찰관 양성
취업분야 : 경찰공무원(해양경찰공무원), 법원.검찰사무직공무원, 소방직공무원, 국가정보원, 형사사법분야, 공항경비대, 개인경호원, 보호관찰, 경비지도사, 법률사무소 사무직

2013학년도 신입생 전형요강

Ⅰ. 전형일정 및 원서접수

전형구분	원서접수		합격자 발표	합격자 등록	비고
	인터넷	창구 / 우편			
수시 1차	12. 08. 16 ~ 12. 09. 21	12. 09. 17 ~ 12. 09. 20	12. 10. 19	12. 12. 12 ~ 12. 12. 14	예치금
수시 2차	12. 10. 29 ~ 12. 11. 16	12. 11. 12 ~ 12. 11. 16	12. 12. 07	12. 12. 12 ~ 12. 12. 14	예치금
정시 1차	12. 12. 24 ~ 13. 01. 11	13. 01. 07 ~ 13. 01. 11	13. 01. 28	13. 02. 04 ~ 13. 02. 06	등록금
정시 2차	미 실 시	13. 02. 27 ~ 13. 02. 28	13. 03. 01	13. 03. 04 ~ 13. 03. 04	등록금

2. 모집학과 및 전형별 모집인원

전형별	정 원 내 전 형			정 원 외 전 형			
	일반전형	특별전형	계	특수교육대상자	기초 및 차상위	전공심화	계
합 계	359	201	560	12	12	20	44
수시 1차	287	181	468	12	12		24
수시 2차	30	16	46				
정시 1차	42	4	46			20	20
정시 2차							

계열	학 과		계	정 원 내							정 원 외			
				수 시					정시		계	수시 1차		정시
				1차			2차							
				일 반	특 별	독 자	일 반	특 별	일 반	특 별		특수교육	기초차상위	심화
합 계			560	287	180	1	30	16	42	4	44	12	12	20
공학	건 설 정 보 과		40	15	20		2	2	1		2	1	1	
	환 경 보 건 과		40	25	12		1	1	1		2	1	1	
	소방안전관리과		55	26	10	1	4	4	10		2	1	1	
	전기전자과		40	28	10		1		1		2	1	1	
	컴퓨터정보과		40	20	16(5)		1	1	1	1	2	1	1	
인문사회	자치행정과	주간	60	20	20		5		15		2	1	1	
		야간	25		18			5		2	20			20
	경 찰 행 정 과		40	22	8		3	1	5	1	2	1	1	
	토 지 행 정 과		40	22	10		5		3		2	1	1	
	호텔관광외식과		45	20	23(10)		1		1		2	1	1	
자연과학	인테리어 패션디자인과	인테리어디자인전공 / 스타일리스트전공	40	30	7(4)		1	1	1		2	1	1	
	뷰티코디네이션과		65	36	26(11)		1	1	1		2	1	1	
	작업치료과		30	23			5		2		2	1	1	